

# 아반떼도 고성능 'N라인'에 합류... 질주본능 깨운다

## 현대차, 아반떼 N라인 렌더링 공개

'1.6 l 터보' 동력성능 강화  
올해 N라인 5종까지 확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대감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N브랜드' 제품군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가 각각 AMG와 M이라는 고성능차 전문 라인업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현대차도 차별화된 제품군으로 기술력 입증에 통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대차 N브랜드의 기술력이 벤츠와 BMW와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8일 준중형 세단 아반떼의 고성능 부분 개조(튜닝) 모델인 '올 뉴 아반떼 N라인'의 외관을 공개했다. '올 뉴 아반떼 N라인'은 현대차가 2017년 9



현대차 올 뉴 아반떼 N라인 렌더링 이미지.

월 첫 번째 N브랜드 모델인 i30N을 유럽에 출시한 뒤 2018년 6월 두 번째 모델 벨로스터N에 이어 세번째로 출시하는 고성능 N 라인업이다.

현대차가 이처럼 N라인업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습식 듀얼 클러치(DCT) 개발 성공덕분이다. 그동안 벨로스터N의 경우 지금까지 수동 변속기 모델만 있었는데, 올해 DCT를

탑재한 자동변속기 모델이 추가됐다. 습식 DCT는 수동변속기 두 개를 결합해 자동변속기처럼 쓸 수 있게 하는데, 연비가 좋고 가속력 등이 뛰어나 고성능차에 쓰인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올해 N라인 제품을 5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반떼 N라인의 디자인은 '로우 앤드 와이드(Low and Wide) 차체가 낮고

가로 폭이 넓다는 의미'를 콘셉트로 외장 주요 요소에 N라인 전용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앞 부분은 메시 라디에이터 그릴과 N라인 엠블럼, 스포티한 인상의 에어 인테이크 등으로 꾸며졌다. 옆 부분은 차체를 낮게 보이도록 연출하는 사이드 실과 N라인 전용 18인치 전면가공 알루미늄 휠이 쓰인 게 특징이다.

현대차는 "뒷 부분에 날렵한 인상의 스포일러와 싱글 트윈 머플러, 수평 구조의 와이드한 리어 디퓨저 등을 적용해 차량의 역동적인 인상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반떼 N라인은 배기량 1.6리터(L)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한다. 최고 출력은 204마력(ps), 최대 토크는 27.0kgf·m다. 6단 수동 변속기와 7단 DCT 자동 변속기 모델이 있다.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동급 최고 수준의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 등도 쓰였다.

현대차는 다양한 라인업 구축을 통해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7~2018년 WRC 제조사 부문 준우승에 이어 지난 시즌에는 참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조사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제조사 팀이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우승한 건 처음이다.

또 지난해에는 전용 랠리카가 아니라 양산차를 튜닝한 모델로 경주하는 WTCC에 i30N TCR로 2개 팀이 출전, 시즌 종합 1~2위를 석권했다. 이런 성과 속에 현대차의 양산형 고성능차 벨로스터 N은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로드앤드트랙에서 '2020 올해의 퍼포먼스카'에 선정된 바 있다.

현대차의 고성능 N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와 라인업 확대를 통해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현대차의 N브랜드는 비인기 해치백 벨로스터N과 i30N만 보유하고 있었다. 아반떼 N에 이어 소형 SUV 코나에도 N 브랜드를 추가해 올 하반기 신차 물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내달 5일 '구릿빛' 갤럭시20 베일 벗는다

삼성전자, '언팩' 초대장 발송  
갤 폴드2, 갤럭시 Z 플립 5G도 공개

삼성전자가 하반기 신형 스마트폰 공개 일정을 확정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폴드 2, 갤럭시 Z 플립 5G 등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8월 5일 오후 11시(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에 '갤럭시 언팩'을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8일 초대장을 발송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언팩 온라인 초대장은 15초 분량의 영상도 담았다. 영상은 S펜에서 떨어진 구릿빛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닿아 퍼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S펜과 물방울 색은 '미스틱 브론즈'로 알려져 있다. 미스틱 브론즈는 지난



삼성전자가 8일 오전 공개한 갤럭시 언팩 공식 포스터. /삼성전자

1일 삼성전자 러시아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유출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모델의 색상과 같다.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상반기 언팩에서는 갤럭시 S 시리즈, 하반기에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공개해왔다. 지금까지 유출된 정보를 종합하면 갤럭시 노트 20은 기본형과 울트라형의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카메라는 울트라 모델이 1억800만 광각, 1300만 망원, 1200만 초광각 카메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100배 줌 기능을 제외하고 문제로 지적된 자동 초점 기능(AF)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트20은 S펜 지연 속도를 애플 펜슬 급인 8ms로 높이고, 120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구현할 예정이다. 2세대 쿼텁 3D 소니 맥스 지문인식스캐너를 도입해 정해진 위치에서만 지문인식이 가능했던 불편함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트20 기본형은 화면 측면 마감 부분을 구부린 '엣지' 방식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평평한 '플랫'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됐다.

언팩에서는 전작을 보완한 갤럭시 폴드 2와 갤럭시 Z 플립 5G도 공개한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삼성, 돌비·DTS 탑재 '프리미엄 사운드바'

호주 시작으로 글로벌 순차 출시

삼성전자가 최고급 사운드바를 들고 전세계를 공략한다. 삼성전자는 8일 호주를 시작으로 2020년형 사운드바 'Q 시리즈' 최고급 모델인 'HW-Q950T'와 'HW-Q900T'를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HW-Q950T는 천장 방향으로 소리를 내보내는 두 개의 무선 후방 업이어링 스피커를 포함한다. 가정용으로는 최다 채널인 9.1.4 채널을 지원하는 것. HW-Q900T도 본체와 서브 우퍼 만으로 7.1.2 채널을 구현했다.

9.1.4 채널은 기존 7.1.4 채널에 좌우 와이드 스피커가 추가된 것으로 물체의 움직임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해주며,

사용자 전면 기준 좌우 60도 전후 각도에서 나오는 전측방 사운드를 들려줌으로써 사운드 범위가 넓어져 보다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개 모델 모두 입체 음향 기술인 돌비사의 애트모스와 DTS사의 DTS:X를 탑재했으며, 새롭게 HDMI eARC도 지원해 돌비 트루 HD와 같은 무손실의 고품질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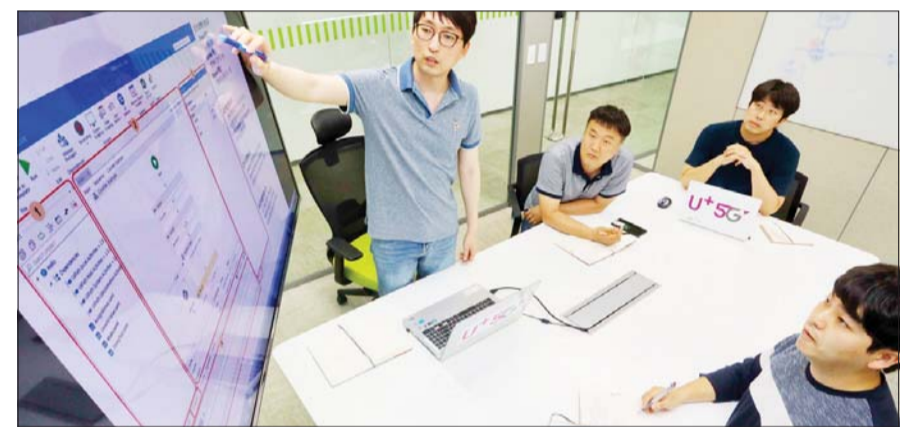
특히 2020년형 삼성 QLED TV와 연동할 경우 TV와 사운드바의 스피커를 모두 활용해 풍부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현해 주는 'Q-심포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Q-심포니는 CES2020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기술이다.

디자인도 강화했다. 기존 대비 사운드바 본체 높이를 13mm 이상 낮춘 69.5mm



삼성전자는 최고급 사운드바를 글로벌에 순차 출시한다. /삼성전자

로 설계해 스탠드형 TV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화면을 가리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사운드 투과율을 극대화한 '크바드라트'사의 패브릭 소재를 제품 전면 적용해 프리미엄 디자인을 완성했다. 가격은 각각 190만원과 140만원이다. 국내에는 오는 14일에 선보일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LG유플러스 NW부문 직원들이 RPA 솔루션을 주제로 토론했고 있다. /LG유플러스

## LGU+, '로봇자동화'로 네트워크역량 강화

LG유플러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의 일환으로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솔루션을 활용해 통신 품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RPA는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로봇)를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을 뜻한다. 정형화된 데이터 비교, 검증이나 반복적인 사무 업무 대체에 활용할 수 있다.

미리 정해진 대로 로봇이 동작해 사람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고,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과제가 개발되면 스케줄링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로봇이 대신 업무를 수행하며 24시간 업무를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2018년부터 네트워크(NW)부문에서 RPA를 도입해 업무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RPA를 개발할 수 있는 자체 전문가를 양성해 외부에 개발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개발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각 조직별로 RPA 업무를 수행할 대표 인원을 선정해 약 20명의 전담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약 160건 과제 개발을 통해 7만 시간에 걸친 업무를 개선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i@

## "소상공인 매장에서 구매하면 기부금 적립"

SKT '착한 소비' 캠페인 진행

SK텔레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상생 제휴마케팅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T멤버십 열린베이커리와 5GX 부스트파크 제휴처에서 고객이 멤버십 할인을 받아 '착한 소비'를 하면 회사가 이용 건당 기부금을 적립하는 '행복크레딧' 이벤트를 10월 말까지 펼친다고 8일 밝혔다.

행복크레딧은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11번가나 SK스

토아 등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면 SK텔레콤이 결제액에 따라 기부 전용 포인트(크레딧)를 적립해 누적된 포인트를 연말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전액 기부하는 식이다.

SK텔레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방객 감소와 수익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T멤버십 열린베이커리와 5GX 부스트파크 제휴처까지 행복크레딧 프로그램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